

##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 10강 깊게 보는 십계명

####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신명기에 나타나는 십계명은 외형적으로 출애굽기 20장과 대단히 유사하다. 그런 이유로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교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준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신명기 5:3에 대한 해석과 연결되어 있다.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은 단순 반복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5:3은 그러한 해석을 거부한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에게 부여된 계명이다. 그와 달리 신명기 5:3에서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통해, 신명기 저자는 출애굽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분리시키고 있다.

덧붙여서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와 세우는 것이라며, 과거와는 '새로운' 것으로 제시한다. 신명기 저자는 율법을 현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의 현재화는 곧 율법의 해석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명기 십계명은 출애굽기 율법을 단순하게 반복하기보다는 율법을 해석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언약 체결은 과거에 매여있지 않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라는 문구를 통해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는 신명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는 성서와 무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시대에 사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요구한다.

특히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안식일에 대해 언급하는 제4계명과 마지막 제10계명에 있어서 두 본문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폭넓은 십계명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제10계명

제10계명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바로 '탐내지 말라'는 용어에서 관찰된다. 두 본문에서는 '탐내지 말라'는 표현이 2회 등장한다. 출애굽기 20:17에서는 내적 충동과 행위에 대한 금지를 표현하기 위해 '하마드' 동사가 2회 사용되었지만, 그와 달리 신명기에서는 첫 번째에는 '하마드' 동사가, 하지만 두 번째에는 '아뵤' 동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동사의 차이로 인해 출애굽기의 제10계명은 '하나의' 계명으로 해석되지만, 신명기의 제10계명은 '두 개의' 계명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와 같은 해석은 이미 가톨릭의 십계명 분류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가톨릭 역시 10가지 계명에 대해 언급한다. 가톨릭은 제10계명을 제9-10계명으로 나눈 반면, 제1-2계명을 함께 제1계명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1 아내,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각각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자. 먼저 출애굽기 20장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명기 5장을 보자

두 본문을 잘 관찰하여 보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따로 분리해서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함께 보도록 하자.

차이가 눈에 들어오는가? 제10계명에서 두 본문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아내의 위치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집’이 강조되었고, 아내는 그 집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등장한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따르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이 등장하는데, 여성은 ‘네 이웃의 집’에 종속되어 있다.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절이 제시하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소유’에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거나,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출애굽기 십계명과 구별되는 것은 신명기 5장이다.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10번째 계명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네 이웃의 아내”가 먼저 등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내는 남자의 재산 목록에서 빠져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에 앞서서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이 독립적으로 서술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종종 아내의 사회적 지위가 격상되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여성은 독립된 인격체이다. 창세기 2장은 여성의 창조를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여성은 ‘뚝는 베필’(에제르 케네그도)로 기록되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뚝는 자, 다시 말해 그의 상대자’로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네게드’라는 단어는 전치사로서 ‘앞에’ 라는 뜻을 갖는다. 이것은 ‘대등하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 대등한 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반대자’라는 의미도 갖는다. 여자는 남자의 일에 항상 ‘Yes’만 하는 것이 아니라, ‘No’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성서는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관심을 갖는다.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 놀랍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여성이 인권이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성서를 읽을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기록된 시대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아니 불과 1950년 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인권이 높지 않았던 시대임을 인지하자.

## 제4계명

제4계명 - 출애굽기

그보다 근본적인 차이를 제시하는 것은 제4계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4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근거는 서로 상이하다. 먼저 출애굽기 20:10-11에 따르면 안식일 준수의 근거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천지창조와 연결되어 있다.

출애굽기 20:10 전체가 “하지 말라”는 명령을 담고 있다면, 11절에는 근거를 제시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다. ‘안식’의 의미로 사용된 샤바트(10절)와 쉼을 의미하는 누아흐(11절)가 여기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6일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의 제4계명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순응해야 함을 선언하며, 그러므로 제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해 준수해야 할 계명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1-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것이며, 제5-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한 것이 된다.

### 출애굽기 십계명의 인간 이해

창세기 1장은 창조 기록이다. 7일 동안 세상을 만든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6일째 날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날’의 개념은 논쟁이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렇다면 인간이 피조된 이후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바로 안식일 이었다. 즉, 인간은 피조된 이후에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취했다.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 인간과 노동에 대한 이해와 대단히 밀접해 있다. 인간은 왜 안식을 취해야 하는가? 노동을 하고 피곤을 풀기 위해 안식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식을 하여 에너지를 얻고 노동을 하는가? 성경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가 보다 적절하다. 노동이 먼저가 아니라, 안식이 먼저이다.

### 제4계명 - 신명기

그것과 비교되는 것이 신명기의 제4계명이다. 신명기에서 관찰되는 제4계명은 어떠한가? 그것은 신명기 5:15에서 확인되는데, 안식일 준수 근거는 신명기 5:15에서 등장한다.

신명기 5:15에는 논리적 결과를 보여주는 “그러므로”(알-켄)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앞에 서술된 이유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했다”는 의미이다. 즉, 14-15a절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먼저는 ‘누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가?’하는 점이다. 14절에 따르면 “너,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네 모든 가축, 네게 유하는 객”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인뿐만 아니라 비(非)자유인들도 안식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자유인들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한다는 기록은 이미 출애굽기 23:12에서 등장한다. 심지어 출애굽기 23:12의 문맥에서는 제7일에 “안식”하는 것을 넘어서 매해 7년에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년’ 개념이 제기되었다.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안식일법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personae miserae)를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안식일은 스스로 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을 위한 것을 넘어서, 스스로 쉬를 선택할 수 없는 비자유인을 위한 사회적 조치였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배려였다.

따라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십계명이 새롭게 이해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십계명은 일반적으로 제 1-4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것이며, 제5-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한 것이 된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신명기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그것과 구별된다. 제1-3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제4-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